



고성군이 조성한 3개 정보화마을의 농수특산물 온라인 판매코너가 인기를 끌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화진포 정보화마을, 진부령허리 정보화마을, 동트는 진등 정보화마을.

농수특산물 온라인 판매 인기

3개 정보화마을 지난해 1억9천만원 소득 화진포·진부령허리·동트는진등 마을

고성군이 농어촌의 정보격차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상에 조성해주고 마을별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화마을의 농

수특산물 온라인 판매코너가 인기를 끌고 있다. 현재 고성지역에는 2003년 가장 먼저 조성된 화진포 정보화

마을을 비롯해 2004년 만들어진 진부령허리 정보화마을, 2007년 탄생한 동트는 진등 정보화마을 등 3곳이 운영되고 있다.

이들 3개 정보화마을은 지난해 총 7만9천여명이 방문했으며, 총 판매실적은 1억9천만원으로 소득증대에 효과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가장 먼저 조성된 화진포 정보화마을은 젓갈, 고성태, 돌미역, 다시마 등 12종의 특산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진부령허리 정보화마을은 진부령황태, 진부령청피만 등 3종의 특산품을 판매하고 있다. 동트는 진등 정보화마을은 황토비누 등 2종의 특산품을 온

라인상에 등록해 판매하고 있다. 또한 진부령 피망따기, 황토비누 만들기, 솔방울동물 만들기, 화진포 배낚시체험 등의 가족단위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마을주민 모두가 질 좋은 농수특산품을 판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성군 관계자는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활성화 및 다양한 홍보역량을 강화해 정보화마을 주민 스스로의 정보 생활화를 유도하고 실질적인 주민 수익을 창출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광호 기자

국제결혼 원하는 미혼남성 적어

인근 자치단체 또는 자매결연도시와 미팅 주선 등 다각적 대책 필요

▶1면으로 이어짐

현재 인구 3만명선을 겨우 유지하고 있는 고성군은 고향을 지키고 있는 이들 35세 이상 미혼 남성들이 끝내 결혼을 하지 못할 경우, 인구 3만명선이 무너지고 고성군이 성장 동력을 잃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고성군이 미혼남성의 결혼문제를 해결해 저출산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농어촌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몇 년전부터 미혼남성 국제결혼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 2009년 6월 ‘고성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농어촌 미혼남성의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일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원대상은 고성군내 거주자로 주민등록법상 3년이상 남성 미혼자 및 국제결혼희망자 전수조사를 통해 희망자를 파악한 후 필요하다면 결혼중개업체와 강원도 협의를 하고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심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10명을 선정해 1인당 500만원씩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35세 이상 미혼 남성의 대부분이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국제결혼보다는 한국인과의 결혼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아, 국내 여성과 미혼남성을 맺어 줄 수 있는 근본적이고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인구보건복지협의회는 2007년부터 결혼지원센터를 신설해 다양한 결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 결혼 관련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결혼전문 포털사이트를 운영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프라인 만남행사를 개최해 폭넓은 만남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결혼관련 고민을 전문적으로 상담해주는 결혼전문 상담실을 운영해 건전한 혼례문화 보급을 통한 결혼친화기차관 형성에 힘쓰고 있다. 부산시의 경우 ‘온라인 만남 프로젝트’를 만들어 결혼 컨설팅 무료 서비스 제공을 한 결과 신청자들이 쇄도해 큰 호응을 얻고 있

다. 부산시에 따르면 1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인구보건복지협회와 1년간 협약을 맺어 결혼 중매전문회사의 결혼지원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한 부산지역 미혼남녀에게 가입비를 면제시켜주고 결혼컨설팅 리포트를 무료로 제공한다. 결혼컨설팅 리포트는 당사자의 나이, 직업, 학력, 신장, 소득수준 등을 결혼분석 데이터에 적용해 비슷한 유형의 사람들을 통계적으로 보여주는 보고서다. 또 서울 서초구청의 경우 남녀 25명을 대상으로 ‘너는 내 운명 미팅 파티’를 개최해 첫 회에 11커플 중 한 커플이 결혼에 골인했다. 커플 행사 전문가사회자를 초청해 참가자들을 팀으로 나눠 퀴즈, 댄스, 연애특강, 일대일 대화를 통해 최종 커플 맺기를 하는 형식으로 이뤄지는 미팅파티는 다양한 직업을 가진 미혼남녀가 신청을 해 높은 신청율을 보였다. 또 결혼중매 상담코너를 마련해 결혼에 골인하는 커플이 늘어나는 등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미혼남성의 60%가 애인이 없는 것으로

집계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앞다퉀 남녀만남을 주선하는 미팅을 개최하고 있다. 최근 가장 유행하는 것은 대규모 거리 미팅이다. 일정한 참가비를 내고 시간을 정해 지정된 거리의 상점가 내 음식점과 카페를 돌면서 음식을 먹고 미팅을 한다. 각 상점 주인들은 남녀의 자연스런 만남을 유도한다. 이런 미팅 방식으로 지자체의 상가에도 도움을 줘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주요 자치단체와 일본의 경우처럼 미혼 남성의 결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결혼 지원 이외의 방법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근 속초, 양양, 인제 지역과의 연계를 통한 미팅 추진과 5개 읍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의 주민자치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한 미혼 남성 맺어주기 프로그램의 개발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람은 제각기 다른 가치관과

정서를 지니고 있다. 조용하고 아름다운 시골을 동경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골벽적이고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도시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조용한 시골생활을 동경하고 순박한 시골종각을 좋아하는 도시여성들도 분명 있을 것이고 국제결혼을 원치 않는 시골 남성들도 있을 것이다. 절대적으로 많은 우리지역의 미혼남성들의 결혼문제를 국제결혼 지원으로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배정해 국내 여성과의 미팅만남을 주선하는 방법도 결혼문제의 물꼬를 틀 수 있는 방법이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방이 그러하듯 고성군의 가장 큰 걱정거리도 인구 늘리기 대책이다. 고성군은 대규모 관광단지 유치, 기업유치 등의 부재와 미혼남성의 증가로 결혼이 이뤄지지 않아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미래가 없는 땅으로 전락하고 있다. 일자리창출 등의 생계문제와 결혼문제는 어느 것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고, 두 가지 문제가 풀리기 시작할 때 고성군의 미래가 밝을 것이다. 좀 더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방식으로 저출산 문제를 접근해야만 실타래가 풀릴 것으로 보인다. 원광연 기자